

《대담》과 대담하기

독서토론 캠프에서 만난
도정일 · 최재천 교수



《대담》 도정일, 최재천 지음 | 휴머니스트 | 614쪽 | 값 25,000원

● 이 글을 쓴 허아람은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난 1990년부터 독서토론 공동체인 아람샘을 운영하고 있다. 2004년 8월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서점 인디고 서원을 열고 책 읽는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꾸리면서 《my beautiful girl, indigo 인디고 서원, 내 청춘의 오아시스》(공리)를 펴냈다.

해마다 수능이 끝나면 논·구술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강좌들이 많지만 올해는 2008학년도 입시 변화 때문인지 적나라한 사교육 시장의 행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자본주의 시장 논리가 교육에 미치는 천박함을 절실히 드러내는 웃지 못할 일들을 많이 보여 주었습니다.

한 예로 제가 운영하는 토론 수업에서 3년을 꼬박 함께 책임기를 하였던 학생들 중 올해 고3 세 명이 서울대에 수시 합격했는데, 작년까지 열었던 저의 논·구술 강의를 올해부터 하지 않게 되자 이과 계열 학생은 차치하고라도 인문대학에 1차 합격한 학생 2명은 좀 난감하였던 모양입니다. 저 역시 논·구술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짧은 기간이라도 책임기를 통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수업해 왔지만 그 기간에 몰려드는 학생들은 조금 급한 마음에 책임기를 통해 비판적 사유를 하고,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글쓰기를 하는 것에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좋은 과정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원칙을 배제하고 결과만을 쫓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입시 체제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답답해하면서도 평소에 전혀 책임기를 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결국 비슷한 문제 유형을 풀어주는 형식의 수업을 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논·구술 수업 특강이 아닌 “인디고 서원 토론 캠프”라는 이름으로 입시 준비와 상관없이 3시간은 책임고 토론하고, 3시간은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두 명의 학생 중 한 명은 인디고 서원 토론 캠프에 남고 한 명은 대치동으로 갔습니다. 캠프에 남은 학생은 하나들 모여든 열다섯 명의 다른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독서 텍스트인 《대담》을 읽고 토론하던 중 서울대 시험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영어지문을 해석하고 교양인의 정의를 내리고, 교양인과 전문인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학생은 우리가 함께 읽고 토론하던 《대담》의 내용 가운데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에서 “학문의 경계란 자연에 실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진리의 궤적을 추적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그어놓은 것이다. 진리는 학문의 국경을 마음대로 넘나드는데 우리 대부분은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학문의 골방에 쭈그리고 앉아 창틈으로 새어들어 오는 가는 빛줄기만 붙들고 평생 씨름한다”는 최재천 교수의 말과 함께,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는 교사들은 자신이 전문인인지는 몰라도 진정한 교양인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의 30년 동안 입시경쟁체제에 내몰려온 학생들을 위

해 기꺼이 투쟁하고 개혁을 위해 뛰어들이지 않으면서, 교사들을 경쟁 체제로 몰아넣는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는 모습에서 교사는 진정한 교양인이어야 한다는 진리에 위배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대치동에 올라가서 하루 10시간씩 서울대 강사들이 만들어준 프린트를 외우고 강의를 듣고 모의 구술을 연습했던 나머지 한 명의 친구도 시험을 치르고 곧장 인디고 서원 토론 캠프에 합류했는데 그의 말은 더욱 가슴 답답한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저는 그동안 읽었던 책에서 대답했어요. 《틱낫한에서 춤스키까지》에서요. 정말 싫었던 것은 우리 교수님은 이런 이런 생각을 좋아해, 평소에 이런 부류의 생각들을 강조해, 하며 자신들이 배우는 교수의 학풍이나 성향을 전달해 주며 수백만 원의 강의료를 요구한 것은 너무나 것 같아요.” 아직 대학에 발을 들이지도 않은 청소년들이 입시를 준비하는 양극화된 현상을 보면서 새해에는 좀더 많은 사람들이 정신차리고 이 짧은 영혼들에게 천박한 시장논리를, 수직적인 권력관계를, 저질스런 결과주의를 배척할 수 있는, 정의롭고 진실된 것이 힘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2월 인디고 서원의 “주제와 변주(저자와의 독서토론)”에 다녀가신 최재천 교수님은 《대담》이라는 책이 곧 나올 것이라며 그때 도정일 선생님도 초대하면 좋겠다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곤 책이 나왔습니다. 6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에 13개의 주제 모두 우리 학문의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서 꼬박 한 달은 열심히 토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인디고 청소년들은 하루 세 시간 토론에 1,2개의 주제를 선택하여 우선 두 필자의 생각을 요약·정리하고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담》이라는 책과 15명의 독자와의 새로운 “대담”을 펼쳤습니다. 지난 3주 동안에 논의한 내용 가운데, 우리는 많은 논의거리를 찾았는데 그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 교수는 ‘과학은 진실을 기만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문학(특히 신화)은 진실을 기만하고 있다. 진실이란 검증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진실이란 검증 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책을 읽고서 학문적인 통합에 대한 담론이 국한된 영역에서 그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봤다. 이러한 통섭이 학문으로서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인디고에서는 의견을 모았다. 그렇다면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만남이 현재 획일화된 가치와 물질 만능주의의 사

회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순 없을까? 이미 획일화되어버린 가치 체계를 가진 사회에서 두 학문의 결합은 또 다른 힘을 만들게 되고, 이미 만들어진 경제적 가치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렸다. 이 생각에 도정일 선생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다. 이 두 학문의 만남의 영향에 대한 피상적인 효과를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전되어야 할 것인지, 그 다리 사이에서 이제 새롭게 학문을 시작할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겠다.”(태완)

“최재천 교수는 줄달음 선택(runaway selection)에 대해서 말하였다. 줄달음 선택이란 이성이 원하는 미적 기준에 따라 이성의 진화가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하지만 인간 사회의 모든 행위들이나 지금까지의 결과들을 보이지 않는 유전자의 이기심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들은 문화적, 정치적 혹은 심미적인 요소 등을 모두 배제시켜 말하는 것이다. 또한 성선택이나 자연선택 같은 진화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더 많은 억지와 극단설로 포장해야 할 것이다. 도정일 교수가 반례로 언급한 것처럼 진화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인간사회의 예술에 대한 경우들은 수없이 많다. 《이기적 유전자》에서의 주장과 같은 것을 예로 보면, 유전자의 이기적인 조작으로 인해 사회가 변화해 왔다고 말한다면 우리 사회는 너무 극단적이고 기계적으로 변할 것 같다.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이 행위들이 우리의 의지가 개입된 마음이 원해서가 아니라 번식 혹은 적응을 위해 선택된 것이라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유진)

“최재천 교수님은 프로이트가 정신의학 분야에 있어서 비과학적인 방법의 연구를 했기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입장이고 도정일 교수님은 문학과 역사 이해와 인간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킨 부분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정일 교수님은 프로이트의 사상이란 쇠퇴해가는 사회의 말기에 그것의 영향력을 미쳐서 그 바탕이 무너지기 쉽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듣고 싶다. 그렇다면 무의식뿐 아니라 사랑, 종교, 마음과 같이 실체가 보이지 않는 영역을 어떻게 연구할 수 있을까?”(지영)

크리스마스 이브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처럼 책 선물을 이미 주신 도정일 선생님이 “주제와 변주”에 오십니다. 그 날 또 다른 변주가 연주되길 바라면서 그 자리의 “대담”에 대한 열정과 치열함이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미래를 꿈꾸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